

무안 오룡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3월 착공

전남개발공사, 남악신도시 270만㎡ 공사발주 공고

2021년까지 3단계로 추진 8천300가구 조성 계획

무안 남악신도시에 270만㎡ 규모의 오룡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2월 30일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오룡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공사발주를 조달청을 통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악신도시는 2021년까지 3단계(1단계 남악신도시, 2단계 임성지구, 3단계 망월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지구 중 옥암지구, 남악지구에 이은 마지막 대형 개발공사다.

오룡지구가 조성되면 8,300가구 2만1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착공식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며 착공 후 2년간은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성토공사 위주로 진행된다.

오룡지구에는 총 5280억원이 투입돼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된다.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남



악지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주거·교육·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선다. 1470억원 규모의 1단계 조성공사는 72만5000㎡ 면적에 택지 3개 공구와 교량 2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택지는 45개월, 교량은 36개월이다. 조경·전기공사도 2016년 분리 발주할 계획이다.

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의무화해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 3개 공구와 남창 6교 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남악신도시 토지 대물로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을 도입한다.

분양시점은 현재 남악신도시의 분양률이 85%에 육박해 추가 토지수요

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를 인공 숲을 활용한 건강도시, 물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자원순환도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한 재생에너지 도시로 조성한다는데 건설 목표를 두고 있다.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미분양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사업의 분양 성과와 인구 유입 추이를 보면서 2·3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폭격 있고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해 도시개발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무안공항 이용객

지난해 13만여명

개항 이후 최대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최대 이용실적을 거뒀다.

전남도는 1일 “지난해 무안공항 이용객은 13만3000명으로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중국 덴진 등 7개 노선 신규 개설과 기존 제주와 상하이 등 4개 정기노선, 마카오 등 15개 부정기 노선 등 모두 21개 노선이 운영됐다.

지난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공항은 첫째인 2008년 13만명이 이용했으나 이후 2009년 5만8000명, 2010년 10만명, 2011년 9만1000명, 2012년 9만6000명 등으로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에 힘입어 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14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침체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무안국제공항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꾸준한 홍보활동과 외국 노선 신규 개설, 남도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겨울 찬바람 속 청정해역 다시마 채취 분주

지난 30일 겨울 찬바람 속에 어민들이 완도 청정해역에서 다시마를 채취하고 있다. 완도는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해조류 보물 창고다.

<원도군 제공>

‘순천사랑 아카데미’ 10년…시민의식 높아졌다

순천시민 31% 8만6000여명 참여

문화·예술·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순천시의 ‘순천사랑 아카데미’가 10년째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시민의식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에 시작한 ‘순천사랑 아카데미’에 10년여 동안 순천시민 31%에 달하는 8만6600여명이 참여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기존의 흥

미 위주 교양강좌와는 달리 차원 높은 문화예술, 인문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로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2011년 10월 개관한 ‘순천시문화건강센터’로 장소를 옮겨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

하게 됐다.

지난 10년여 동안 모두 216회의 강좌를 운영하면서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형 박사, 소설가 김홍신, 천하장사 이만기, 박범신 작가, 신달자·정호승 시인, 탤런트 전원주·최불암, 방송인 배한성·로버트 할리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를 초청했다.

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생각하는 정원’의 저자 성범영씨를 시작으로 정원문화, 생태환경, 자연 치유 등의 전문가 강좌를 통해 정원박람회 개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순천 시민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 분야를 파악해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대 조류에 맞게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설계 관련 강좌를 증설해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건립

도, 259억 들어 나주에 건립…한방 신약·치료 기술 개발

전남도는 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남분원 역할을 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 건립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1994년 대전시 유성구에 개원해 임상실험을 통한 표준화연구, 한방 신약 개발, 새로운 진단·치료기술 개발, 한약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한의기술융합센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남분원으로, 2016년까지 259억원을 들여 나주 동신대 인근에 연면적 6000㎡ 규모의 연구동, 연구장비,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다.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전남지역의 친환경 농수산자원과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 국가 차원의 한의약 자원 연구개발(R&D) 허브단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한의기술융합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유치하는 등 생물·바이오산업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해 소망 기원 나주 옛 동헌 ‘복 두드림 제야행사’

‘복 두드림 제야(除夜) 행사’에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새해 소망을 빌었다. 복 두드림 제야행사는 조선시대 나주 목사를 지낸 학봉 김성일이 정수루에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것을 이년에 처음 재현했다.

<나주시 제공>

‘여수 빛노리야’ 인기몰이 10일새 방문객 10만 돌파

대표적인 겨울축제 ‘자리매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가 볼 만한 전국 겨울축제’로 선정된 ‘2013 여수 빛노리야’가 개장 후 10여일만에 방문객 10만명을 넘기는 등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빛노리야는 지난 20일 개장한 이후 30일까지 11일간 10만87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는 가운데 지난 성탄절과 성탄절에는 무려 3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형형색색의 아가자기한 조명과 해바라기 등 꽃 형상을 띤 조형물, ‘소망의 빛’ 터널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팔짱을 낀 가족과 연인들이 불빛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애초 오후 5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였던 운영 시간

을 지난 27일부터 평일은 자정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일암 일출제 등으로 전국단위 해돋이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는 31일에는 1월1일 새벽 6시까지 점등 시간을 연장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30분 축제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토요 상설공연, 시립예술단 공연을 선보이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일부터 운영하는 여수 도시관광 코스에 빛노리야 축제를 추가하기도 했다.

시 한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인 흥국체육관 주차장을 오후 5시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여수시청 주차장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남도 ‘국제 자선 달리기 대회’ 유치

5월 4일 5000여명 참가 36개 도시서 동시 출발

전남도는 1일 “전세계 34개국 36개 도시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국제 자선 달리기 대회’(Wings for Life World Run)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회 주관사인 레드블 코리아는 지난 11월부터 국내 개최 유치 희망도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국내 행사 지역으로 전남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 대회는 척수 손상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 대회로, 오는 5월4일 전 세계 34개국 36개 도시에서 동시 출발하며, 전 세계에 생계된다.

국내에서는 목포와 영암 일원 100km 구간에서 국내 5000여명의 달리기 선수와 동호인들이 참가한다. 영암 F1경주장에서 출발해 목포대교, 평화광장, 대불산입단지와 영암 들녘을 지나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레드블이 개최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대회 참가비는 전액

척수손상 장애인 치료 연구재단(Wings for Life Spinal Cord Research Foundation)에 기부된다.

전남도가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F1경주장, 목포대교 야경, 수변공원인 평화광장 등 대회 구간에 부여된 의미와 뛰어난 경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대회 구간 교통 통제 관련 기관의 합의를 조기에 마무리짓는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도 한몫했다.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장애인을 돕는 기금 조성이라는 의미있는 대회여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며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개최지가 전 세계에 홍보되며 전남도가 스포츠 명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읍시가지 상시 인력 배치…감시용 CCTV 추가 설치

장성군이 읍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시가지 경관 개선 및 교통 정체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군은 1일 “시가지 내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시가지 고려시멘트 공장 앞 오거리부터 반구다리 앞 교통광장까지 이르는 약 1.6km 구간과 역전로 주변으로, 금지구역 내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군은 상시 인력을 배치해 매일 2회

씩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정차 지역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감시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한다.

단속 예고장을 발부하고도 주차 가능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총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해 ▲장성역 앞 교차로 조성 ▲하수도 정비 ▲상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 시가지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